"밥 먹고 가족밥상 함께해요"

인천석남중, 아침밥 먹기 캠페인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인천석남중학교(교장 고보선)는 지난 11월 29일 바른 식생활 교육 인천네트워크와 연계해 성장기 우리 아이들 아침밥 먹기 건강 캠페인을 벌였다. 바른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는 '바른 식생활이 좋아요!!' 라는 제목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은 나와 지구를 지키고, 안전한 음식을 골고루 알맞게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하고, 자연과 생산자에 대한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특히,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하루 한 번! 온 가족이 밥상에서 만나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침밥은 뇌 활동이 활발해 집중력과 창의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혈당을 낮춰서 당뇨병 및 비만을 예방하며, 또한 쌀에는 혈압 상승 억제 물질이 함유돼 있어 성인병을 예방하고 입속 세균을 잡고 입 냄새 걱정도 없게 한다고 한다.

교문에서 등교 맞이 아침밥 먹기 행사에 참석한 고보선 교장은 "우리 성장기 학생들에게 아침밥 대용으로 하트모양이 새겨진 백설기를 나눠 주니 학생들의 떡 받을 때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어 좋았고, 지역이 함께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동참해 좋았다"라고 격려했다.

사랑이 담긴 떡을 받은 한 학생은 "정말 좋았고, 매일 이렇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학생은 "아침 못 먹었는데 하나 더 주세요?"라며 아침밥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다른 학생은 "아침에 따뜻한 떡을 받아 행복하고 교실에서 친구와 나눠 먹겠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바른 식생활 교육네트워크 윤혜숙 상임대표는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하며,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바른 식생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안용섭 기자 ays@

창의성 발휘해 프로젝트 완성

영종중,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서 전시 부스 운영

영종중학교(교장 문관식)는 12월 1~4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실시된 201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에 〈영종중학교 자유학기제 'Welcome to edu-wood' 학교수업 하태~핫태~!!〉전시 부스를 운영해 참가한 시민들로부터 크나큰 호응을 받았다.

전시작품은 학생들이 집성 판재를 활용, 한정된 재료의 크기와 특성을 고려해 제품의 실용성, 구조성, 심미성, 독창성 등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가구를 디자인 설계해 팀원들과 협업을 통해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을 발휘해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학생들은 과정에서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자기 주도성, 의사소통력, 협업능력, 협업을 위한 인성 기반을 경험하고 갖추는 데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작품의 완성뿐 아니라 모든 과정의 내용을 포트폴리오와 동영상으로 제작한 결과물이다.

부스운영에 참여한 1학년 김모 학생은 "많은 사람이 찾아와 격려와 관심을 보여 재미가 있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우든 펜을 만들어 선물로 줄 때 즐거운 표정을 짓는 관람객 모습에 기뻤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문관식 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적능력과 창의성, 인성, 적성을 개발해 꿈과 끼를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수업개선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배움 과정이 일과 직업 세계의 적응에 있어 환경친화적 소재인 목재 활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구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은?

인천백운초, 키자니아 현장체험학습

인천백운초등학교(교장 황돈혁)에서는 방과 후 초등돌봄 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2월 2일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키자니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고 가상 화폐로 교육, 물건 구매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는 테마파크이다.

체험학습에 앞서 학생들은 모둠을 조직해 다양한 직업 활동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의견을 모아 체험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는 준비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했다.

돌봄교실 학생들은 요리사가 돼 요리를 만들고, 조종사가 돼 비행기를 조종하는 등 70여 가지의 직업을 체험했으며, 직업 활동을 수행한 후에 가상화폐인 키즈를 받아 물건을 구매하는 등 경제 활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직업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고 자신의 소질을 발휘해 성취와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2학년 윤모 학생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직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같은 모둠 친구가 좋아하는 직업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라고 밝혔다.

이번 돌봄교실 체험학습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양한 직업을 접하고 직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진로를 탐색할 기회의 장이 됐으리라 기대해 본다.

안용섭 기자 ays@

보행자 우선 '걷기 좋은 도로'

송파구,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 완료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가주초등학교 인근 오금로40길(가주초교~가락동 150-7, 170m)에 대한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걷기 좋은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차도를 축소하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도로는 가주초등학교 통학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다.

폭 8m인 도로 양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다수 설치돼 있고 내리막 경사이면서 차량통행이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이었다.

이에 올해 2월 서울시 공모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관련 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2개월의 공사 끝에 9일 사업을 완료했다.

총 3억2천만 원의 예산(시비)이 투입됐으며 ▲도로 한쪽의 노상주 차장 철거 및 보도 신설 ▲미끄럼 방지 포장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행 우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창동골목시장 '보라축제' 개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창동골목시장을 아로니아 중심의 특화시장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여주대 6차산업연구소와 협업해 아로니아를 활용한 특화음식 레시피 및 가공식품을 개발한다. 또한 시장 내 점포별로 특화된 현수막, 포스터, 배너, POP 디자인 제작도 지원한다.

한편 구는 영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창동골목시장-두들마을 영농조합, 창3동-석보면의 도농교류협력과 아로니아 특화사업 및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12월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로니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보라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3주차인 12월 17일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로니아 특화상품과 특화메뉴 전시회가 진행되며 다양한 체험이벤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아침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다

부일중 교사들, 매일 맨손체조 실시

부일중학교(교장 송용배) 본교무실 교사들은 10월부터 아침마다 5분가량 맨손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귀찮은 생각도 들었지만, 서로 독려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다 보니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됐다.

체조에 참여해온 교사들은 5분의 작은 투자가 뭉쳐있던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더욱 유연하게 해, 힘차고 활력 있게 수업과 학교 업무를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한 달이 지나고 아침체조가 정착되면서, 업무차 본 교무실에 들리셨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체조에 함께 참여하는 교사도 있고, 다른 교무실에서 와서 아침마다 함께하시는 교사도 있다. 지난주부터는 몇 개의 동작을 더 추가해 진행하고 있다.

오늘도 부일중학교 본교무실 교사들은 힘차고 즐거운 체조로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한다.

안용섭 기자 ays@

송파구 '우리 동네 건강보안관' 제도 각광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의료 틈새계층을 발굴,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건강보안관'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주민을 찾아내고 각종 개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관내 취약지역인 5개 동(거여,마천,장지동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본격화됐다.

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우울증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전문가 치료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 2016년부터는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유대감 형성이 긴밀한 통장 등 50명을 '우리 동네 건강보안관'으로 위촉,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을 좁혔다.

이들은 대면조사를 통해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